



이태열 선임연구위원

요약

- 출생아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17년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다가 2020년 10월, 11월에 일시적으로 큰 폭 하락한 후 기존 추세로 회귀하는 추이를 보임
 - 코로나19가 심각해진 2020년 2월부터 단기적으로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회피현상이 나타나면서 9개월 이후인 10월, 11월에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
- 혼인 건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추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감소율을 유지하다가 2020년 4월, 5월에 큰 폭 하락한 이후 2021년 초까지 약 1년 동안 큰 폭 감소세를 지속함
 -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만연하면서 혼인이 매우 임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약 2개월 후부터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
- 따라서 혼인의 경우, 출산의 경우보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빠르게 나타났으며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남
 - 혼인 위축에 따른 신혼부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동거기간이 길어지면서 기혼부부의 출산이 출생아 수 감소세를 둔화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임
- 2021년 하반기 코로나 4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혼인 및 출산과 관련된 환경의 악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 - 한 자녀를 갖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, 혼인의 위축은 결국 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필요가 있음
 - 코로나의 4차 유행기에 신혼부부의 혼인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다양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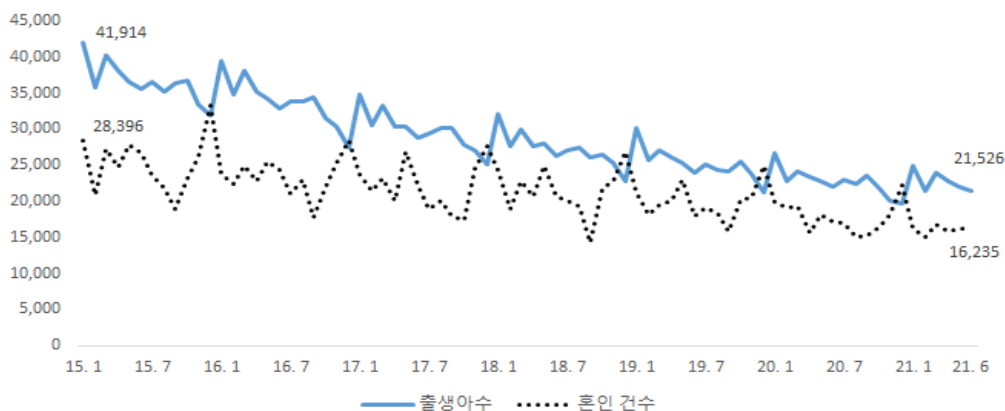
1.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추이

○ 2021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출산과 혼인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, 사망과 이혼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인구증가를 위한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

- 장기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코로나19가 만연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에도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(〈그림 1〉 참조)
 -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감소세를 지속하여 2021년 6월에는 각각 2만 1,526명, 1만 6,235명을 기록하였으며, 이는 2015년 1월의 4만 1,914명과 2만 8,396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임
 - 2019년 11월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면서 자연인구가 감소¹⁾하기 시작하였으며, 2021년 6월에도 사망자 수는 2만 4,391명으로 출생자 수를 추월하고 있음

〈그림 1〉 우리나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추이

(단위: 명)



자료: 통계청

○ 본 보고서는 출산과 혼인 변화의 장기 추세를 살펴보고, 코로나19가 이러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해봄으로써 인구 문제와 관련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

- 출산, 혼인 등 인구 관련 변수들은 계절성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 기준의 증가율을 활용하여 변화 추이를 최대한 단순하게 파악하고 최근 변화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함
 -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추이를 분석함에 있어서 복잡한 계량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추이의 변화를 기초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논의하고자 함
- 특히,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확산된 이후 출산과 혼인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으며, 이러한 변화에 기초해서 볼 때 심화되고 있는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우려해야 할 사안을 논의하고자 함

1) 자연인구의 증감은 출생자와 사망자의 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만큼, 내국인의 유출이나 외국인의 유입 등은 고려하지 않음. 따라서 실제 인구의 증감하고는 차이가 발생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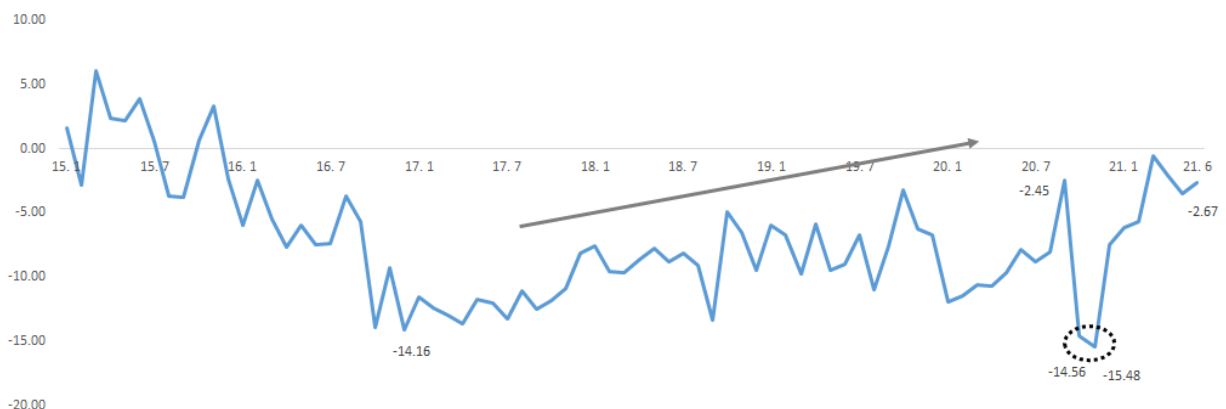
2. 코로나19와 출생아 수 추이

○ 출생아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17년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다가 2020년 10월, 11월에 일시적으로 큰 폭 하락한 후 기존 추세로 회귀하는 추이를 보임(〈그림 2〉 참조)

- 출생아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추이는 2016년 12월 -14.16%를 기록한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율이 축소되면서 2020년 9월에는 -2.45%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었음
- 코로나19 이후 출생아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20년 10월, 11월 각각 -14.56%, -15.48%를 기록하면서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는데, 이는 2001년 12월(-17.08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
 -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가 심각해진 2020년 2월부터 단기적으로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회피현상이 나타나면서 9개월 이후인 10월, 11월에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²⁾
- 반면, 2020년 12월부터는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2021년 6월에는 출생아 수 증가율이 -2.67%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출생아 수 급감현상은 단기에 그친 것으로 판단됨

〈그림 2〉 우리나라 출생아 수 증가율 추이

(단위: %)



주: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임

자료: 통계청

2) 2021년에 코로나19를 원만하게 극복해 간다면 출생아 수 감소율의 둔화 기조와 2020년 10월과 11월의 기저 효과가 결합되면서 2021년 출생아 수가 2020년과 비교하여 매우 유사한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있을 것임



3.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 추이

○ 혼인 건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추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감소율을 유지하다가 2020년 4월, 5월에 큰 폭 하락한 이후 2021년 초까지 약 1년 동안 이러한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남(〈그림 3〉 참조)

- 혼인 건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의 경우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2월부터 약 2~3개월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-21.76%, -21.27%를 기록하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함(〈그림 3〉 참조)
- 이러한 감소는 1997년 1월의 -22.92%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, 코로나19가 만연하면서 혼인이 매우 임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기하거나 포기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

〈그림 3〉 우리나라 혼인 건수 증가율 추이

(단위: %)



주: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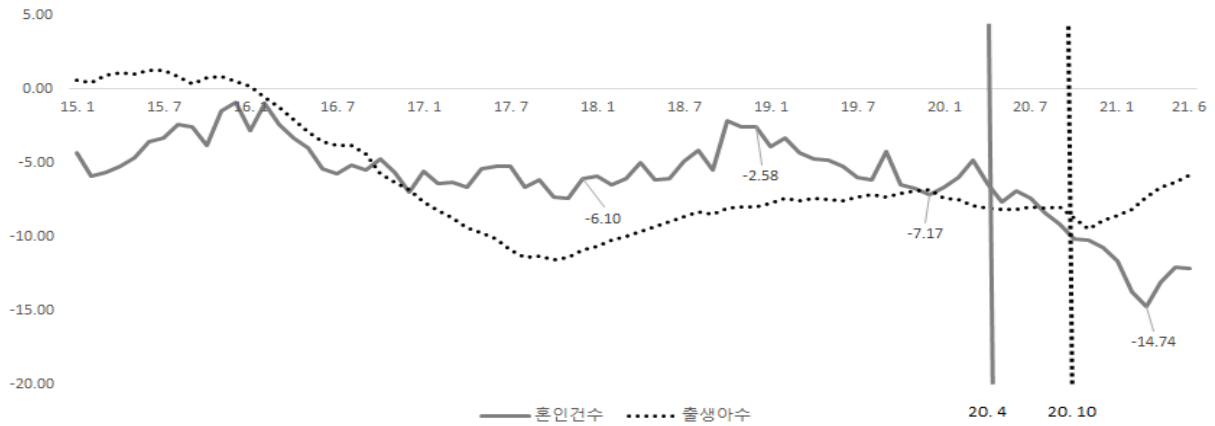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

- 다만, 혼인 건수의 경우 출생아 수 증가율 추이와는 다르게 기존 추세보다 빠른 감소세를 보이는 현상이 1년여 지속되면서 2021년 2월에도 -21.62%를 기록하였음
- 혼인 건수를 해당 시점을 포함하여 직전 12개월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율로 전환할 경우, 2020년 2/4분기부터 시작되어 1년여 지속한 빠른 하락세를 더욱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음(〈그림 4〉 참조)
 - 혼인 건수의 연간 증가율의 경우 2017년, 2018년, 2019년 각각 -6.10%, -2.58%, -7.17%였던 반면, 혼인 건수 증가율이 급락한 1년(2020. 4~2021. 3)간의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율은 -14.74%로 현저히 낮음³⁾
 - 반면, 출생아 수의 12개월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20년 10월 이후 짧은 하락세를 보인 후 바로 우상향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혼인 건수와는 다른 특징을 보임

3) 특정 시점을 포함한 12개월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율의 경우 각년도 12월에는 1~12월의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율이 되기 때문에 연평균 증가율과 동일한 개념이 됨

〈그림 4〉 우리나라 혼인 건수의 12개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추이

(단위: %)



주: 직전 12개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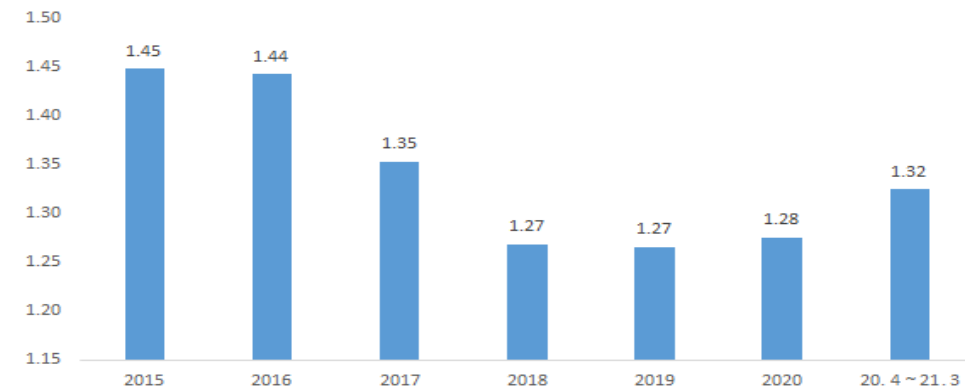


4. 코로나19의 영향과 시사점

- 그래프 추이를 통해서 볼 때 혼인의 경우에서 출산의 경우보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빠르게 나타났으며,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임
- 혼인의 경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약 2개월 후인 4월부터 큰 폭 감소하였으며, 대략 2021년 1/4분기까지 이러한 빠른 감소세를 이어 갔음
- 출산의 경우는 2020년 2월부터 약 9개월 후인 2020년 10월과 다음 달인 11월에 큰 폭 하락세를 기록한 이후 기존의 추세로 회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〈그림 5〉 혼인 건수 대비 출생아 수 추이

(단위: 출생아 수/혼인 건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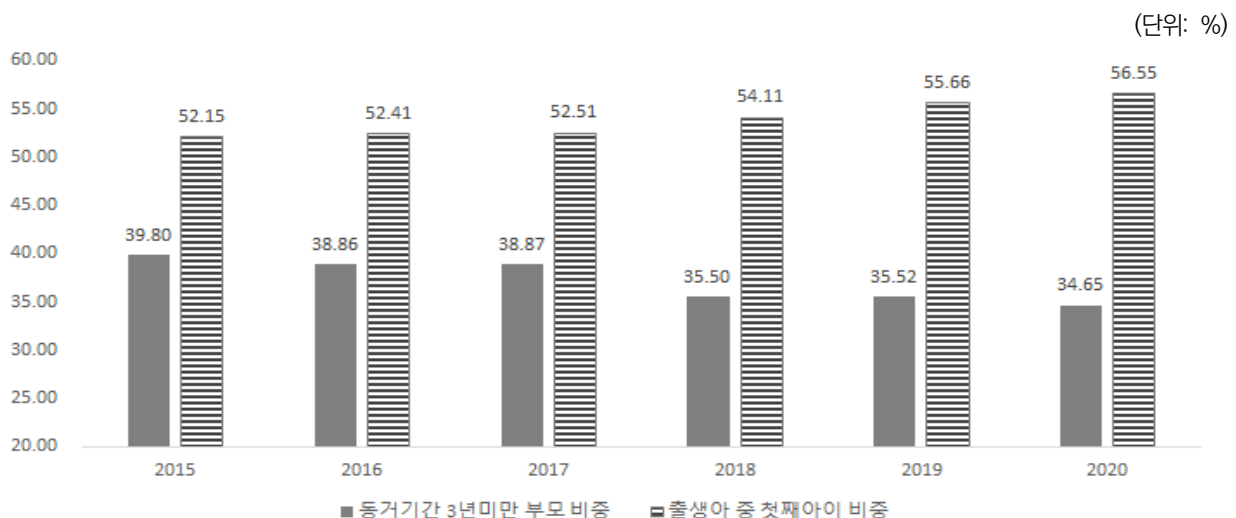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

-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한 1년(2020. 4~2021. 3)여 기간 중 혼인 건수 대비 출생아 수는 오히려 상승하여 1.32명을 기록함(그림 5) 참조)

○ 혼인 건수의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혼인 이후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동거기간이 길어지면서 혼인과 출산의 인과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(그림 6) 참조)

- 대부분의 출산이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⁴⁾의 경우, 혼인과 출산의 관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밀접할 수밖에 없음
- 그러나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, 자녀 출생 시 부모의 동거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의 비중은 2015년 39.80%에서 2019년 35.52%로 2020년에는 더욱 낮아져 34.65%를 기록함
- 따라서 혼인 위축에 따른 신혼부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거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기혼부부들의 출산으로 출생아 수 감소세가 둔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

〈그림 6〉 자녀출산 시 부모의 동거기간 및 출생아 중 첫째아이의 비중



자료: 통계청

○ 그러나 다자녀 기피 현상 등을 고려할 때 혼인의 위축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, 결국 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필요가 있음(그림 6) 참조)

- 한 자녀를 갖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출생아 중 첫째아이의 비중은 2015년 52.15%에서 2020년에는 56.55%에 이르는 등 갈수록 상승하고 있음
 - 이는 이미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추가로 출산하기보다는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첫째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

4)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 중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비중이 사실상 대부분(2020년 97.4%)이기 때문에 혼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음

- 결국, 한자녀 가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신혼부부가 향후 출산할 1명의 자녀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출생아의 주류를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혼인 감소 현상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
- 2021년 하반기 코로나 4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, 혼인과 출산과 관련된 환경의 악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 - 2021년 상반기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전반적으로 혼인과 출산 모두 2020년의 급격한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됨
 - 문제는 2021년 하반기부터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4차 유행이 확산되면서 혼인 및 출산 특히 집합과 관련된 혼인을 위한 환경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임
 - 혼인의 경우 코로나19의 충격이 이미 지난 1년간 지속된 상태에서 2021년 2/4분기부터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었으나, 2021년 하반기부터 다시 급속한 감소세로 돌아선다면 이는 2년째 급격한 위축을 겪게 되는 것이므로 출산 여건의 악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것이 우려됨
 - 따라서 코로나의 4차 유행기에 신혼부부의 혼인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다양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